모시는 글

서울시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위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광화문에서 청계천로에 이르는 세종로 일대에 광장(가칭 세종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으로부터 숭례문에 이르는 중심축 상에 서울광장, 숭례문광장, 청계광장이 이미 조성되어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며, 이제 정부의 경복궁 및 광화문 복원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세종광장(가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미 조성된 청계천으로부터 경복궁까지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세종로를 역사문화광장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심에 새로운 관광축을 형성하고 2010년 외국 관광객 1,200만 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성되는 세종광장(가칭)은 600년 고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 광장임과 동시에 다양한 퍼포먼스와 볼거리가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며, 경복궁을 향한 감동적 조망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광장 조성의 3가지 대안(양측배치, 중앙배치, 편측배치)을 마련하였으며, 이제 전문가 및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세종광장(가칭)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청계천과 연계하여 보행자 및 관광객의 이용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6년 12월 5일(화) 13:30~17: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주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주제발표

김선웅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심발전연구단장
세종광장 조성방안

최승담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세종광장 조성의 관광적 의미와 관광활성화 방향

■ 토 론

김은희 / 도시연대 사무국장

승효상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신혜경 /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재훈 /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문화재위원

조경진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황기연 /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종상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

목 차

■ 주제발표 1

세종광장 조성방안

(김선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심발전연구단장) 3

■ 주제발표 2

세종광장 조성의 관광적 의미와 관광활성화 방향

(최승담,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29

■ 주제발표 1

세종광장 조성방안

김선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심발전연구단장

<제목 차례>

1. 사업의 개요 ····· 3
   1) 사업의 추진경과와 배경 ····· 3
   2) 사업의 범위 ····· 3

2. 현황 및 관련계획 ····· 4
   1) 주요 건축물 및 개발동향 ····· 4
   2) 토지소유현황 ····· 5
   3) 가로지장물현황 (광화문~청계광장 구간) ····· 5
   4) 관련계획 검토 ····· 6
   5) 세종로의 유래와 도심에서의 의미 ····· 8

3. 세종광장(가칭)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 10
   1) 600년 고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광장 ····· 10
   2) 보행레벨에서 경복궁이 조망되는 개방감 확보 ····· 10
   3) 청계천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경복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보행체계 개선 ····· 11
   4) 다양한 퍼포먼스와 볼거리가 있는 열린공간 마련 ····· 11

4. 계획의 기본전재 및 대안 검토 ····· 12
   1) 양측배치안 ····· 13
   2) 중앙배치안 ····· 15
   3) 편측배치안 ····· 17

5. 기대효과 ····· 18

6. 교통개선방안 검토 ····· 19
   1) 보행체계 검토 ····· 19
   2) 세종로 주변지역 교통현황 분석 ····· 20
   3) 대안별 교통영향분석 ····· 20
   4) 세종로의 차량우회 분산처리 방안 ····· 22

7. 세종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 24
   1) 덕수궁 내 세종대왕 동상 이전 검토 ····· 24
   2) 중앙분리대의 은행나무 이식 검토 ····· 24
   3) 중앙분리대의 이순신장군 동상 이전 검토 ····· 25
   4) 장기적인 건축물 및 가로환경 관리방향 ····· 25

세종광장 조성방안

1.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추진경과와 배경

-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지 600년이 되는 1994년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는 5,000년 삶의 터전으로서의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대표성을 강조하고자 서울상징거리 조성계획(1994),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1995), 조망가로 조성사업 계획 연구(1998), 시범가로 기본계획 수립(1999), 경복궁 광화문권역 문화재환경정비(도시계획) 기술용역(2002.12),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2003) 등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숭례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완성함. 현재 계획 중인 세종광장조성사업은 서울의 이미지강화를 위한 마무리 단계의 사업임.

- 서울특별시는 문화재청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 중인 광화문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의 동서 중심축인 청계천과 경복궁을 직접 연결하고 역사문화의 숨결을 느끼고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세종광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세종로, 율곡로의 도로선형 조정이 불가피해짐.

2) 사업의 범위

- 광화문과 그 주변지역을 복원하고 광화문과 청계광장을 연결하는 세종로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임.

- 이를 통하여 기 조성된 숭례문 광장에서 서울광장을 거쳐 청계광장으로 이어지는 광장축을 경복궁까지 연장하여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함.

- 사업기간은 2007년 9월에서 2008년 8월까지 약 일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1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사업의 범위

2. 현황 및 관련계획

1) 주요 건축물 및 개발동향

-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열린 시민 광장 등 관광문화시설과 정부중앙청사, 문화관광부, 미국 대사관 등의 공공기관들이 세종로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하여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세종로 주변의 중앙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임. 정부종합청사는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3단계에 걸쳐 이전할 계획이며 문화관광부의 경우는 2013년, 2단계 계획에 따라 이전을 추진할 예정임.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인한 이적지 활용방안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한편 민간에 의한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새안빌딩, 흥국생명, 서울파이낸스빌딩, 오피시아, 베르시움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대형 업무용 주상복합 건축물이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르미에르, 금호빌딩, 미래에셋 등이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2> 주요 건축물 및 개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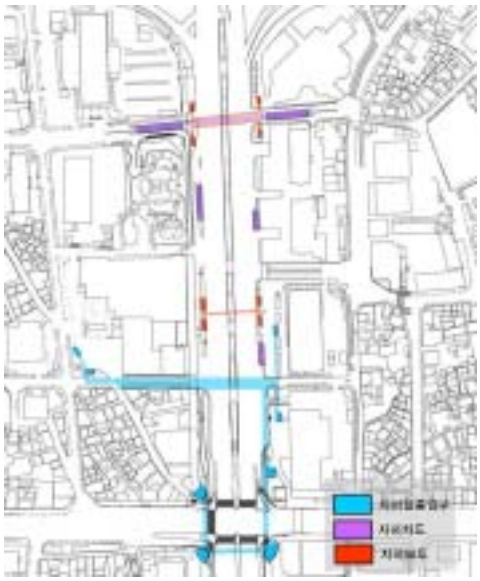
2) 토지소유현황

- 공공기관 소유의 부지가 대부분으로 정부종합청사 부지는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부지는 문화관광부, 미국대사관 부지는 외무부, 세종문화회관부지는 내무부, 광화문열린시민광장과 세종로주차장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음.

<그림 3> 토지소유현황

3) 가로지장물현황 (광화문~청계광장 구간)

- 세종로 주변으로 지하철 출입구 6개소, 지하보도 출입구 8개소, 지하차도 출입구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 정류장 10개소, 가판대 8개소, 환기구 11개소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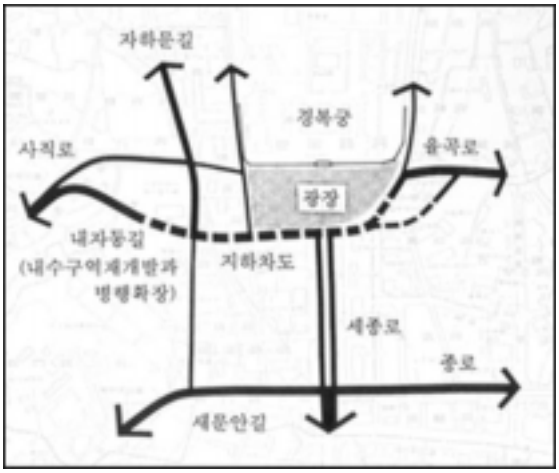


<그림 4> 가로지장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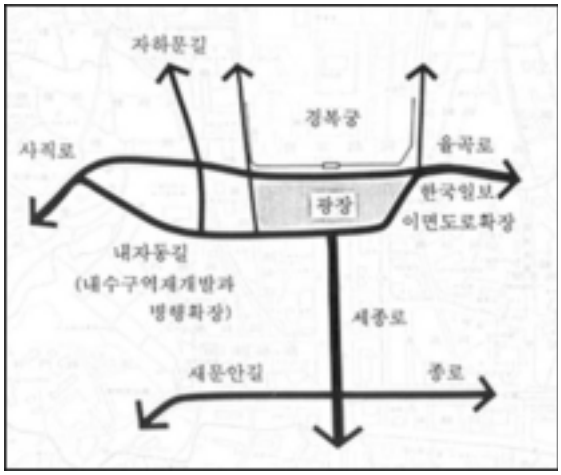
4) 관련계획 검토

- **서울특별시 상징거리 조성계획 (시정연, 1994)**

국가중심거리로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자동길을 10차로로 확폭 및 동서지하차도를 개설하고, 한국일보사에서 문화관광부를 연결하는 도로를 현재 15m에서 30m로 확장하며 자하문길에서 새문안길을 연결하는 남북도로는 26m로 확폭하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함. 이와 더불어 광화문의 원래 위치 복원과 어도, 해태, 육조 관아 부분의 재현, 광장지하에 주차장 조성, 광장과 정부종합청사의 외부공간 연계, 전시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유치, 세종로의 보도와 인접대지의 공개공지 정비 및 가로수 회랑 조성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광화문 광장 및 세종로 가로수회랑 계획을 제안함.



<그림 6> 광장과 경복궁 연결



<그림 5> 지상광장 조성

- **시범조망가로기본계획 (서울시, 1999)**

1998년 시행된 “조망가로조성 사업계획” 중 시범가로인 세종로, 사직로 등을 대상으로 가시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각 조망가로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설계안을 수립함.

	1단계 기본계획	2단계 기본계획	3단계 기본계획
차도 및 보도	· 왕복 14차로로 축소 · 일부 보도 및 안내판 정비	· 왕복 12차로로 축소 · 도로선형정비 · 보도폭원 확장	· 왕복 12차로 유지
중앙분리대	· 중앙분리대를 좌우 1차로 확폭	· 2개 차로 만큼 중앙분리대 추가 확보	· 폭원 25m의 조망광장 조성
지하보도 및 지하차도	· 보도는 타용도로 전환하고 차도는 존치	· 완전 제거	· 제거 후 활용 및 선형정비
조망포켓 정비	· 세종문화회관 앞 · 경복궁역 앞	· 광화문 열린시민광장 · 문화관광부 앞 · 세종로 지하주차장 앞	· 정부종합청사 앞 · 미대사관 앞

<표 1> 시범조망가로계획

• **경복궁 광화문권역 문화재환경정비 기술용역 (문화재청, 2002)**

경복궁 복원정비기본계획 5단계 사업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으로서 광화문과 동·서십자각만을 복원하는 단기안과 월대 및 육조거리 완전 복원과 경복궁 전면부 공원화, 광화문 앞 일부 차없는 거리 조성을 통한 조망 및 주변환경 개선, 세종로의 왕복 8차로 축소와 우회도로 건설을 통한 중앙공원의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기안, 그리고 사직로와 율곡로간에 왕복4차로, 연장 1,040m의 장대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내자동길 및 그 연결도로는 왕복 7차로로 확장하는 장기안을 제시함. 그리고 최장기적으로는 광화문 앞 세종로 전체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경복궁으로의 조망과 주변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기존도로 폐쇄로 인한 교통처리를 위해 주변에 대체도로 확보를 제안함.

<그림 7> 단기안

<그림 8> 중기안

<그림 9> 장기안

• **시민광장조성 기본계획연구 (서울시, 2003)**

광화문 주변에 광장을 마련하고 세종로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지역에 상징가로를 조성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광화문관련 계획안과 국내외 사례조사를 참조하여 양측보도배치형과 중앙광장형의 2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교통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로수를 조정하여 보도를 확폭·정비하는 양측보도배치형을 기본계획안으로 마련함. 광화문 복원의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광화문 앞에 폭 30m 가량의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와 경복궁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열린마당과 교보빌딩 앞에 각각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함. 경복궁으로의 조망과 행사시 가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은행나무 이식을 검토함.

• **광화문 및 월대 복원계획 (문화재청, 2006~2008)**

일제에 의해 훼손된 광화문을 복원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수립됨. 콘크리트로 가복원하여 변형된 광화문을 경복궁의 중심축에 맞추어 약 14.5m 앞으로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에 월대, 해태상 등을 복원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사유지 보상, 도시계획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완료된 상태임.

5) 세종로의 유래와 도심에서의 의미

• 세종로 이름의 유래

- 조선시대에는 육조앞, 육조거리, 해태앞길, 비각앞으로 불리다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식 이름인 광화문통이라 이름 지어짐.

다른 왕들과는 달리 경복궁에서 즉위하셨으며 1427년(세종 9년)부터는 경복궁에서 국사를 보시고 정문이었던 남문을 광화문으로 개칭하셨던 세종대왕과 경복궁과의 인연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업적이 가장 뛰어난 세종대왕의 치적을 기리는 뜻에서 600년 이상 우리 민족의 생활 중심지이자 국가의 중심지였던 이 가로의 이름을 1946년 10월 1일 세종로라 명함 (세종로이야기, 서울특별시, 2005).

• 경복궁과 육조거리

- 육조거리는 광화문 앞에서 황토현(현재 광화문사거리)에 이르는 대로로서 조선시대 한양의 어가(御街)였음.

왕궁·도성·궁성 등의 대역사와 병행하여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 좌·우에 의정부와 육조를 비롯한 주요 관아가 건설됨으로써 육조거리가 형성됨.

광화문을 중심으로 동측에는 의정부·이조·한성부·호조·기로소가 위치하고 서측에는 예조·중추부·사헌부·병조·형조·공조 및 의영고와 사역원이 자리했음 (http://www.ngodoore.com).

<그림 10> 육조거리 원형+현황

• 세종로에 숨겨진 일제의 의도

- 일제는 1912년 훈령을 통하여 경성의 도시구조를 변형하였고 국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근정전 앞에 총독부 건물을 일본에 의해 강화된 태평로축에 맞추어 건설함으로써 경복궁의 남북축을 차단함. 또한 해태상과 광화문을 이전하고 경복궁을 파괴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함.

총독관저(大)~총독부(日)~경성부청(本)~조선신궁(天)에 이르는 일제의 축이 형성됨 (세종로이야기, 서울특별시, 2005).

<그림 11> 경성부청

<그림 12> 경성신궁

<그림 13> 일제의 축

• 서울 도심에서 세종로의 의미

- 세종로는 정치·외교·행정·업무 등의 중추기능이 집결된 대한민국의 “핵심가로”인 동시에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등 대표적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밀집된 지역임.

  사직로 및 율곡로에 의해 발생하는 동서교통과 강남 및 용산에서 북측의 은평구일대로 향하는 남북교통이 교차하는 서울 도심의 핵심부에 위치한 중심가로임.

  현재 덕수궁의 대한문 전면광장이 개선되었으며 덕수궁 복원계획과 함께 경복궁·광화문 권역이 복원될 예정임. 서울광장과 숭례문광장의 조성, 청계천 복원 및 천변 보행체계 구축, 정동지역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도심부에 집중되어 진행 중임.

  세종광장(가칭)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심부의 역사복원과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연계하여 경복궁에서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도심 남북1축 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활성화하는 초석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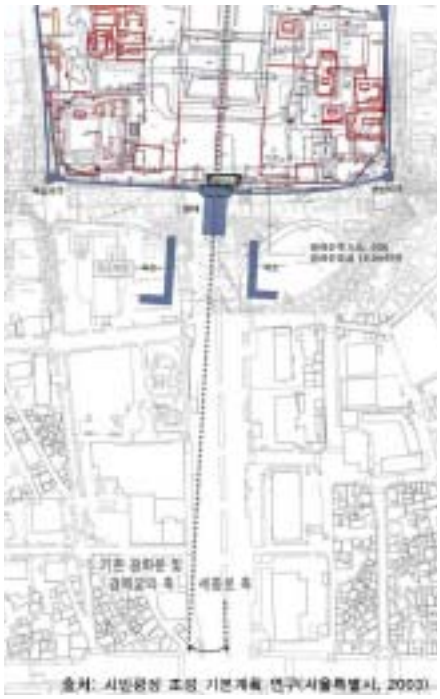
3. 세종광장(가칭)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 600년 고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광장을 세종로에 조성하고 보행레벨에서 경복궁이 조망되는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청계천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경복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퍼포먼스와 볼거리가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다목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1) 600년 고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광장

- 광화문 및 월대, 해태상의 복원과 연계·추진하여 광화문 전면부에 600년 고도의 역사적 자취를 느낄수 있는 역사문화광장을 조성함. 또한 세종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덕수궁 내 모셔진 세종대왕 동상을 세종로로 이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임.

<그림 14> 광화문광장 복원 조감도



<그림 15> 세종로축과 광화문 및 경복궁축

2) 보행레벨에서 경복궁이 조망되는 개방감 확보

- 북악산과 광화문을 향해 개방된 가로공간을 조성하고 파노라마가 부각될 수 있도록 가로선형과 가로식재를 함.

-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나 체코 프라하의 바츨라프 광장의 경우에는 개선문과 국립박물관, 동상 등과 같은 인공구조물을 통하여 가로 경관을 조성한 반면에 세종로의 경우 경복궁이라는 인공구조물과 경복궁 배후의 자연경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한국고유의 차별화된 가로조망을 형성할 수 있음.

3) 청계천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경복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보행체계 개선

-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경복궁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세종로의 보도를 확폭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광화문과 세종로, 세종로의 동서간을 보행으로 연결하도록 함. 광화문과 청계천을 지상에서 보행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서울역~숭례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경복궁에 이르는 관광루트를 조성함.

자료: 도심부 발전계획, 서울특별시, 2004

<그림 16> 광화문 일대 관광문화거점

4) 다양한 퍼포먼스와 볼거리가 있는 열린공간 마련

- 향후 공공기관의 이전에 의해 발생될 이적지에 문화관광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확충하고 가로변 저층부에는 문화시설, 카페 등을 입점 시켜 가로를 활성화함. 또한 세종광장을 다양한 이벤트(응원전, 축제, 각종 행사) · 휴식 · 쇼핑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가로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함.

자료: 시민광장조성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03

<그림 17> 다양한 거리활동

4. 계획의 기본전제 및 대안 검토

- 서울특별시는 광화문에서 청계천로에 이르는 세종로 일대를 600년 고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 세종로에서 경복궁을 향한 개방감있는 조망 통로를 확보하여 도심에 감동스러운 새로운 관광축을 창조하며, 다양한 퍼포먼스와 볼거리가 있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꾸미기 위하여 지난 9월 27일 세종광장(가칭) 조성을 위한 3개 대안을 대외에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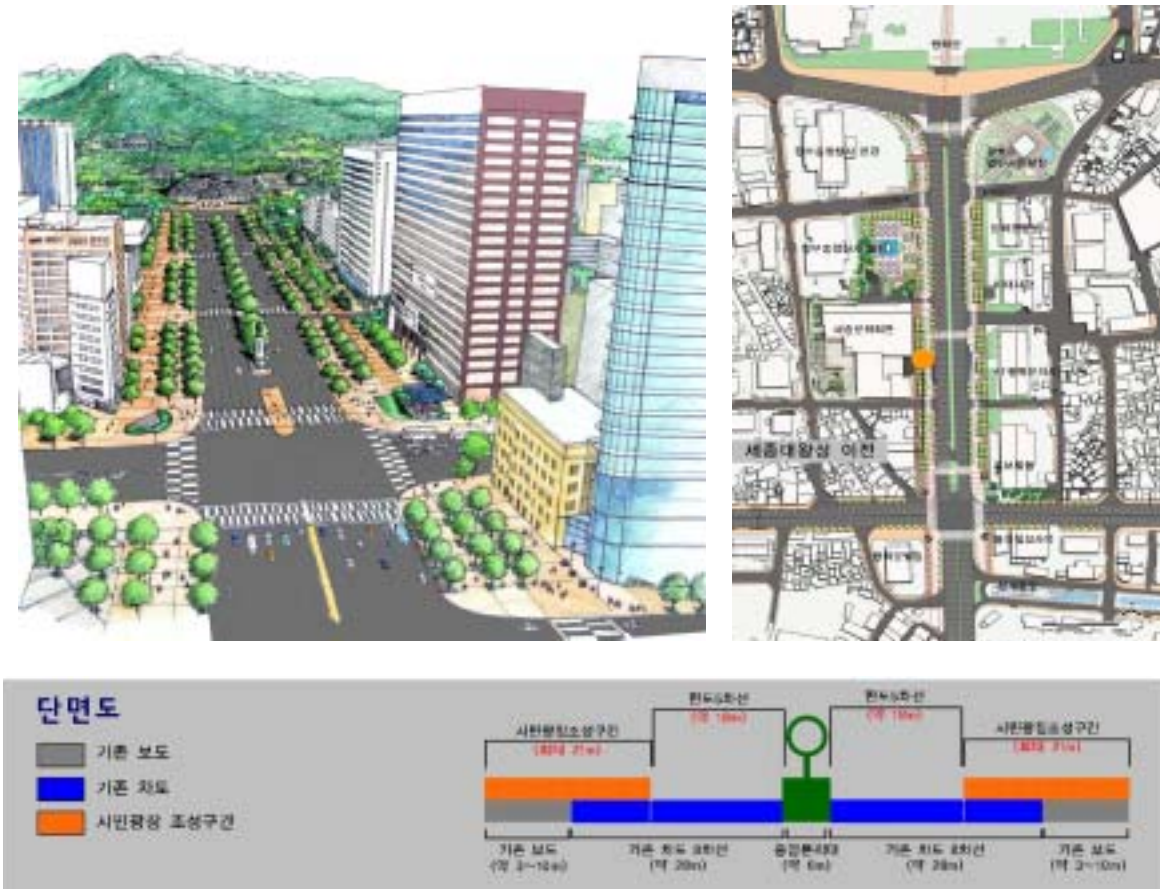
- 계획의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음. 세종광장은 광화문 앞에서 청계천에 이르는 폭 약 82m, 연장 약 740m의 세종로 일대에 조성함. 특히, 광화문을 경복궁의 남북축에 맞추어 5.6° 틀고 14.5m 남측으로 전진 배치하는 정부의 광화문 복원사업(경복궁복원정비기본계획 5단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함.

- 세종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편도 8개 차로의 세종로를 편도 5차로로 축소함. 또한 율곡로의 동향 편도 5개 차로는 4개 차로로 감소하고 광화문 교차로의 유턴 2개 차로를 1개 차로로 축소·조정함. 그리고, 세종로와 광화문을 직접 연결하는 횡단보도 및 세종로 동서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거리 단축과 보행 편리성을 제고함.

-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3개 대안은 세종로의 양측 보도를 확장하여 각각 21m 정도의 광장을 조성하는 양측배치안, 세종로의 기존 중앙분리대 (폭 6m)를 확폭하여 폭 27m의 중앙광장을 조성하는 중앙배치안, 복원되는 광화문축에 맞추어 세종문화회관측에 최대 폭 33m의 광장을 조성하는 편측배치안으로 구성됨.

1) 양측배치안

- 양측배치안은 세종로 양측 보도를 확장하여 광장으로 조성하는 대안으로서, 현재의 왕복 16차로 도로를 10차로로 감축하여 가로 양측의 보도(광장)를 각각 최대 21m로 확대 함. 또한 덕수궁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세종문화회관 앞의 확장된 보도(광장)로 이전함.



<그림 18>양측배치안의 조감도·평면도·단면도

- 이 대안은 세종로변 기존시가지와 연접한 가로의 활성화에는 유리하나 단순히 보도의 확폭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에 그쳐 상징가로로서의 이미지 강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중앙분리대의 은행나무와 이순신장군 동상을 양측보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광화문과 그 배후의 북악산을 향한 시원한 조망축이 확보되어 시민들에게 탁트인 개방감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음. 반면에 은행나무와 이순신장군 동상을 현 위치에 존치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세종로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양측배치 사례로는 폭 27m의 중앙차로 양측에 각각 21.5m의 보도(광장)가 마련되어 있는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를 들 수 있음.

<그림 21>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

<그림 19> 양측배치안의 조감도 (은행나무 및 동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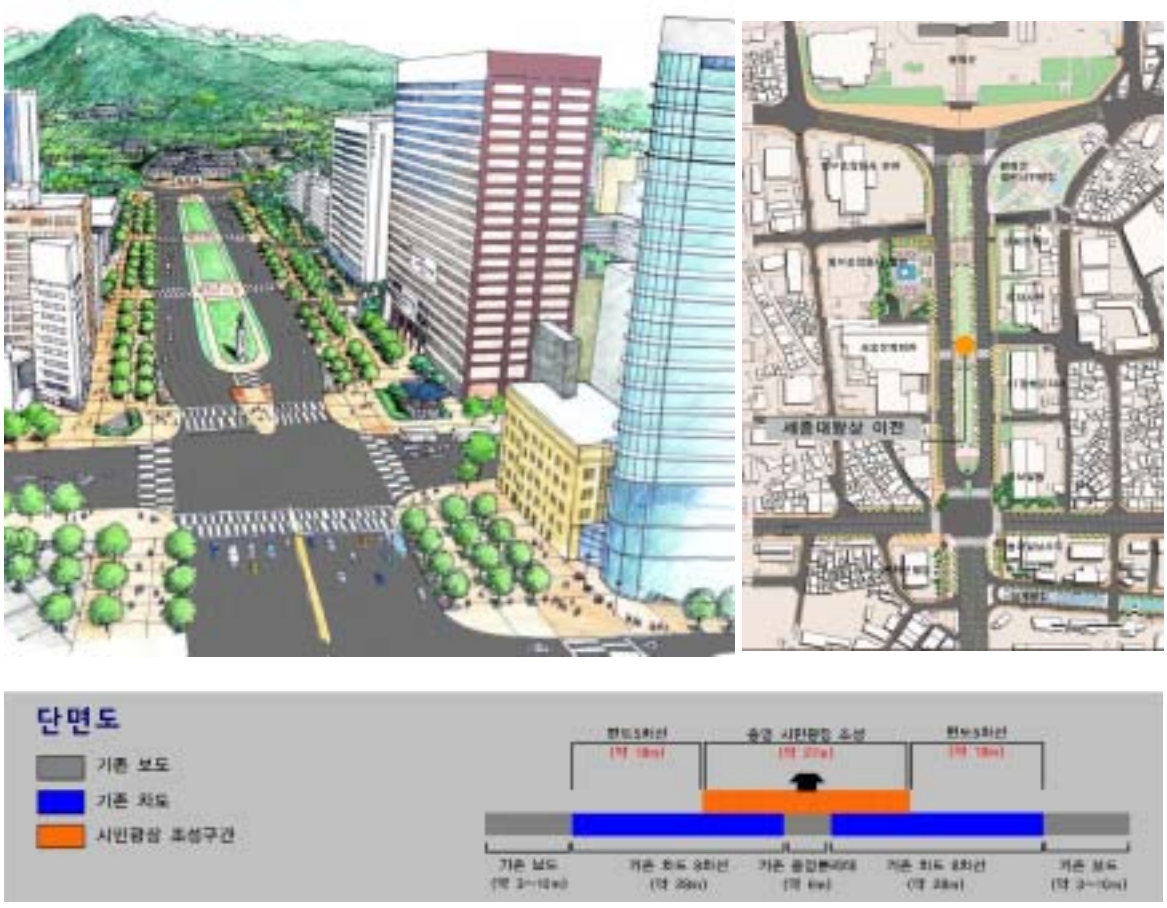
<그림 20> 양측배치안 조감도 (은행나무 및 동상 이전)

<그림 21> 양측배치 조감도 (은행나무 이식 및 교통정온화 기법도입)

2) 중앙배치안

- 중앙배치안은 세종로 중앙에 광장을 조성하는 대안임.

- 기존 16차로를 10차로로 감축하고 기존 중앙분리대 위치에 가로폭 약 27m의 광장을 조성하는 안으로서 광화문으로의 조망축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은행나무를 양측보도로 이식함. 이순신장군 동상은 현재 위치에 유지하고 덕수궁에 모셔진 세종대왕 동상은 광장 내로 이전함.



<그림 22> 중앙배치안의 조감도·평면도·단면도

- 이 대안의 특징은 광장으로서의 중심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 광화문을 향한 조망축 확보에는 유리하나 광장 좌우에 조성된 차도로 인하여 기존 양측 보도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광장 내 보행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

<그림 23> 중앙배치안의 조감도 (은행나무 이식 및 이순신장군 동상유지)

<그림 24> 중앙배치안의 조감도 (은행나무 이식 및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

- 중앙배치의 사례로는 폭 60m의 가로 중앙에 약 15m 폭의 중앙광장이 조성된 체코 프라하의 바츨라프 광장(연장 750m)과 미국 워싱톤시의 내셔널몰을 들 수 있음. 특히 워싱턴 기념탑 동측 부분의 경우, 도로 폭원 10m 정도의 메디슨로(Madison drive)와 제퍼슨로(Jefferson drive) 사이에 약 128m 폭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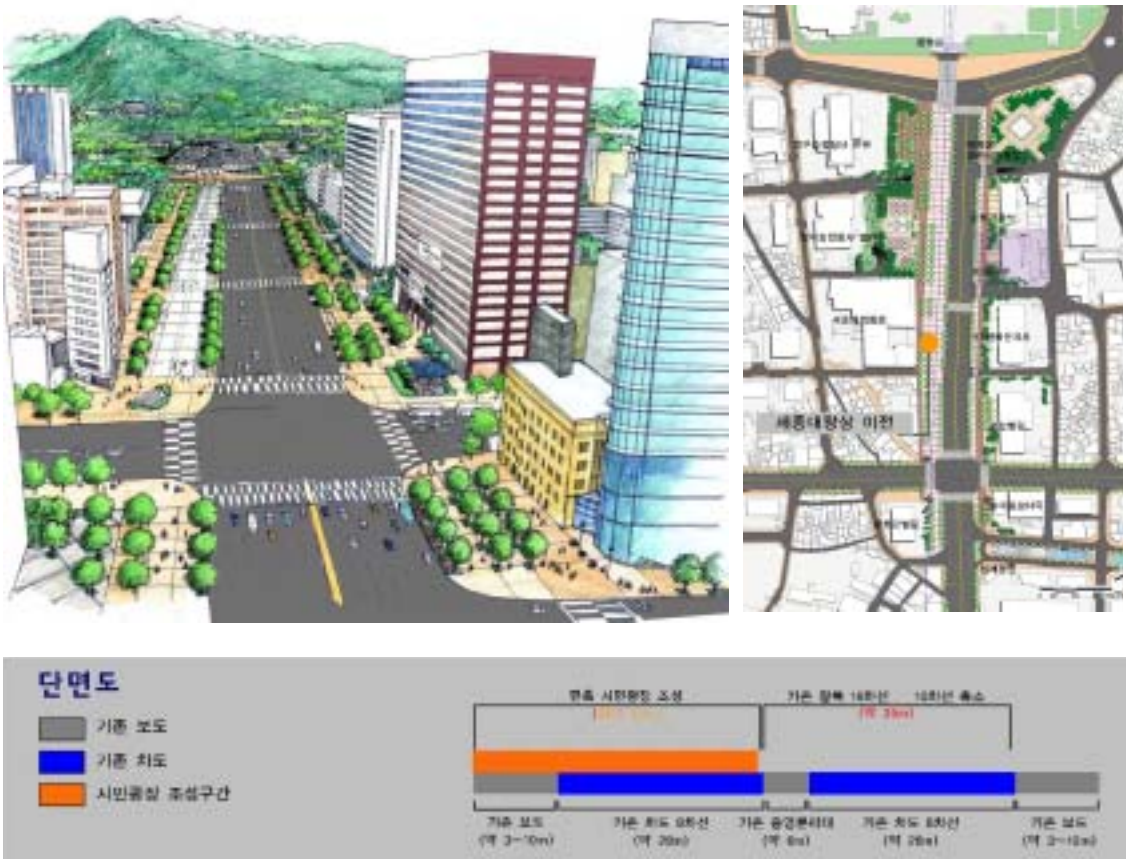
<그림 24> 체코 프라하의 바츨라프 광장

<그림 25> 미국 워싱턴시의 내셔널몰

3) 편측배치안

- 편측배치안은 복원되는 광화문축을 따라 세종문화회관측으로 편측광장을 조성하는 대안임.

- 이 대안은 광화문을 경복궁축과 일치하도록 5.6° 틀어 14.5m 남측으로 전진하여 이전하고 광화문 앞에 월대와 해태상을 복원하는 정부의 광화문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종문화회관 측에 최대 33m 폭의 편측광장을 조성하는 것임. 특히 편측광장의 조성을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차로는 동측으로 통합함. 또한 복원되는 광화문축과 선형이 일치되는 편측광장의 세종문화회관 앞 지점에 세종대왕의 동상을 이전할 계획임.



<그림 26> 편측배치안의 조감도·평면도·단면도

- 이 대안의 특징은 중앙분리대 은행나무와 이순신장군의 동상을 각각 광장 가로변과 광장 시작부로 이전하게 되어 광화문 방향으로의 조망축이 확보되며 세종문화회관 측으로 대규모 선형광장이 형성되어 다양한 행사와 가로활동의 수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반면 광화문축과 광장축을 일치시킴으로써 보도에서는 역사축을 회복할 수 있으나 차도에서는 시각 편향이 발생함.

<그림 27> 편측배치안의 조감도 (은행나무 및 이순신장군 동상 이전)

<그림28> 편측배치안의 조감도 (은행나무 및 이순신장군 동상 이전,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

5. 기대효과

- 세종광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광화문~청계천~서울광장~숭례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위주의 환경친화적 역사·문화의 거리를 완성하고 경복궁이라는 인공구조물과 배후의 자연경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한국고유의 차별화된 가로조망을 제공함으로써 1,200만 관광객 유치라는 서울특별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흡인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외 방문객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강렬한 서울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세종광장 주변의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될 이적지에 문화관광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확충하고 가로변 저층부에는 문화시설, 카페 등을 입점시키어 가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세종광장을 다양한 이벤트(응원전, 축제, 각종 행사)·휴식·쇼핑 등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축제의 장을 제공함.
- 서울의 도심을 600년 역사도시의 품격과 문화가 느껴지는 공간을 재창조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세종광장 조성사업은 민선 4기 도심활성화를 위한 남북 4대축 사업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것임.

6. 교통개선방안 검토

1) 보행체계 검토

- 경복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보도를 오르내리거나 사직로 또는 율곡로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멀리 우회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보행을 통한 접근이 불편한 상태임. 따라서 청계천에서 광화문까지의 직접적인 보행 연결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음.

- 세가지 대안 모두 세종로와 광화문을 직접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거리 단축 및 편리성을 제고함. 특히 편측배치안의 경우, 횡단보도를 활용하여 광화문과 편측광장을 직접 연결함. 그리고 세종로 동서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 앞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함.

- 기존에 조성된 광화문사거리의 횡단보도는 유지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광화문사거리에서 청계광장으로 자연스러운 보행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또한 광장조성에 따라 보도가 확폭될 경우, 현재 약 15% 정도인 보도의 비율이 개선 후에는 3개 대안에 따라 대략 30~4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28> 보행체계 개선을 위한 구상도

2) 세종로 주변지역 교통현황 분석

- 세종로는 너비 약 70m의 연장거리가 626m에 이르는 왕복16차로의 간선 도로임. 이 지역의 교통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종로를 중심으로 한 6개 교차로 (① 내자동교차로, ② 효자동교차로, ③ 박물관교차로, ④ 삼청동교차로, ⑤ 안국동교차로, ⑥ 세종로교차로) 지역을 주요 결점으로 선정하여 교통현황을 분석함.

<그림 29> 주요 교차로 주변의 교통현황 분석

- 분석결과 세종로의 북향 접근 지체는 42.8초이며, 남향 접근지체는 24.8초로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광화문교차로의 지체는 45.4초인데 반하여 광화문교차로의 서향 좌회전 이동류에 대한 지체는 101.5초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이는 교통량 대비 신호현시가 부족한 데에 따른 것으로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신호현시를 최적화하면 큰 문제없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그림 30> 광화문 방향 보행 및 교통 현황

<그림 31> 시청 방향 보행 및 교통 현황

3) 대안별 교통영향분석

- **대안별 교통운영 특징**

3개 대안 모두 광화문 교차로의 기하구조 변경은 다음과 같음. 세종로를 편도 8개 차로에서 5개 차로로 줄이고 율곡로의 동향 편도 5개 차로는 4개로 축소하여 운영토록 함. 세종로 가로 중간에 횡단보도 1개

소를 설치하고 광화문 교차로의 유턴 2개 차로를 1개 차로로 축소 운영함.
그러나 양측배치안의 경우에는 광화문교차로의 기하구조 변경과 더불어 동향과 북향의 우회전 차로 베이를 추가하여 용량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세종로에서 삼청동 방향의 우회전 신호현시를 제거하고 차로 변경에 따른 신호현시를 최적화함.

중앙배치안의 경우 광화문교차로의 기하구조는 중앙광장을 제외하면 양측배치와 같은 형식임. 그러나 신호최적화시 반경의 증가로 인하여 좌회전 현시에 대한 황색신호시간이 교차로 구조에 맞도록 연장됨.

편측배치안의 경우 북향 유턴차로를 세종로 중간부의 횡단보도로 이동하고 우회전 베이는 제거함.

- **대안별 교통영향 분석 비교**

구분	주요 설계 변경 내용	광화문 교차로 신호 운영
양측배치안	· 율곡로→세종로(1), 세종로→율곡로(1) 우회전 베이 추가 · 교차로 남쪽, 동쪽 접근로에 횡단보도 설치	· 삼청동 방향 우회전 신호 현시 제거
중앙배치안	· 율곡로→세종로(1), 세종로→율곡로(1) 우회전 베이 추가 · 교차로 남쪽, 동쪽 접근로에 횡단보도 설치 · 동쪽 접근로의 좌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녹지축 후퇴 · 세종로 가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를 2단형으로 설치	· 삼청동 방향 우회전 신호 현시 제거 · 좌회전반경 증가로 황색시간 연장
편측배치안	· 율곡로→세종로(2) 우회전베이 추가 · 교차로 남쪽, 서쪽 접근로에 횡단보도 설치 · 북향 유턴차로를 세종로 중간 횡단보도로 이전	· 삼청동 방향 우회전 신호 현시 제거 · 현시 시간 배분은 현황과 동일

<표 2> 대안별 교통운영 계획

- **대안별 교통영향분석 결과**

세가지 대안 모두 현황대비 지체 증가율이 47~60%로 교통규제 운영개선을 통해 교통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교통처리 면에서 편측배치안이 세가지 대안 중 유리하나 양측배치안과 중앙배치안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됨. 편측배치안의 경우 편측 전면 보도의 광장화로 연결 및 접속로를 폐쇄함에 따라 세종로 축상의 U턴 차로가 없어짐으로써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피크 시 지체수준이 임계 교통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존 세종로 통과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우회 처리대책이 필요함.

구분	Network Delay	변경 내용
양측배치안	134.9초 (58.5% 증가)	· 세종로 및 율곡로 동향 차로 축소 · 우회전 차로 베이(Bay)화
중앙배치안	136.4초 (60.3%)	· 세종로 및 율곡로 동향 차로 축소 · 서향 좌회전반경 증가 · 세종로 중간에 2단 횡단보도 운영
편측배치안	124.7초 (46.5% 증가)	· 세종로 및 율곡로 동향 차로 축소 · 북향 유턴 차로를 세종로 가로 중간 횡단보도로 이전

<표 3> 대안별 교통영향 분석

4) 세종로의 차량우회 분산처리 방안

- **세종로축 통과교통의 특성**

현재 강남에서 도심을 통과하여 강북의 서북지역과 동북지역으로 향하는 교통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당량의 교통이 서소문로, 한강로, 반포로, 을지로, 종로, 청계천로 등을 경유하여 세종로로 집중되는 특성을 보임.

<그림 32> 세종로축 통과교통 특성

- **교통처리의 원칙**

도심진입 및 통과교통을 억제하여 도심을 대중교통과 보행중심으로 개편함. 그리고 서북방향의 세종로 통과교통은 의주로로 우회분산처리하며 통과차량의 소통보다는 접근차량 처리에 중점을 두도록 함. 이와 함께 세종로축의 도로구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광화문~서울역구간의 차로 균형을 확보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된 여유 공간은 보도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함.

<그림 33> 교통처리 계획안

7. 세종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1) 덕수궁 내 세종대왕 동상 이전 검토

- 현재 덕수궁 내에 모셔진 세종대왕 동상은 지난 1968년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임.

- 그러나 세종대왕과 덕수궁은 역사적으로 상관관계가 적어 문화재청에서는 영릉(여주군), 홍례문 광장(경복궁) 등으로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나 관련 단체 및 기관별로 의견이 상이하여 이전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 이에 서울특별시는 세종로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향후 조성될 세종광장의 형태를 고려하여 세종문화회관 주변에 이전 적정지를 선정하고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세종대왕 동상을 모셔올 예정임.

2) 중앙분리대의 은행나무 이식 검토

- 세종로 은행나무는 시민들의 기억 속에 친숙한 정경이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본이 한반도를 영구히 지배한다는 의도로 수명이 긴 은행나무를 식재(세종로이야기, 서울특별시, 2005)하였으므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음.

- 현 중앙분리대의 폭이 좁아 은행나무의 생장상태가 불량하고 세종로에서 경복궁, 북악산으로의 조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으로 이식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1년 정도 미리 은행나무의 이식을 준비한다면 수형을 다치지 않고 이식이 가능하다고 함.

<그림 36> 1936년 당시의 세종로

<그림 37> 현재의 세종로

3) 중앙분리대의 이순신장군 동상 이전 검토

- 1968년 5월 4일 설치된 애국선열 조상 위원회를 통하여 조각가 김세중씨가 키 7m, 무게 8톤의 이순신장군 동상을 제작함. 현재 세종로 입구 중앙분리대에 조성된 높이 12m의 좌대(받침대) 위에 동상이 세워져 있음.

<그림 38> 이순신장군 동상

- 세종로에 이순신장군 동상이 설치된 것은 사회적 합의라기보다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현재 세종대왕 동상의 세종로 이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순신장군 동상의 이전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세종로와 이순신장군의 동상은 분리시킬 수 없는 이미지로 시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음.

4) 장기적인 건축물 및 가로환경 관리방향

- 세종광장을 다양하고 활력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대규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대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 특히, 시민 중심의 활력 있는 가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행 통행을 고려한 가로포장과 식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수나 조각물, 벤치 등 특색 있는 가로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가로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그리고 가로변 저층부에 노상 카페, 음식점, 소매상점 등을 배치하고 다양한 가로축제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방객에게 개방되고 재미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시각통로의 확보와 품격이 있는 가로환경의 유도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배치, 형태, 용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39> 광화문 주변 월대 및 육조 복원의 조감도와 평면도

참고문헌

- 문화재청(2002), 경복궁 광화문권역 문화재 환경정비(도시계획) 기술용역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서울 상징거리 조성계획
- 서울특별시(1998), 조망가로조성 사업계획
- 서울특별시(1999), 시범 조망가로 기본계획 및 설계
- 서울특별시(2003), 시청앞, 광화문, 숭례문 광장 시민 광장조성 기본계획 연구
- 서울특별시(2004),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 서울특별시(2005), 세종로 이야기

■ 주제발표 2

세종광장 조성의 관광적 의미와 관광활성화 방향

최승담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제목 차례>

1. 머리글 ····· 29

2. 세종광장조성의 관광적 의미 ····· 30

1) 새로운 도심관광명소의 창출 ····· 30

2) 도시의 관광이미지 제고 ····· 30

3) 국제적인 대규모 역사·문화축제의 장 제공 ····· 32

4) 서울시민 및 지역주민의 여가기회제공 ····· 33

5) 한국관광홍보의 장으로서의 기능수행 ····· 33

3. 관광활성화 방향 ····· 33

1) 항상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33

2) 광장의 상징성 및 유일성 제고 ····· 34

3) 광장공간의 가변성 확보 ····· 35

4) 수준 높은 공공시설의 조성과 서비스 제공 ····· 35

5) 국제적 축제의 개발 ····· 36

6) 에듀테인먼트의 장으로서의 광장조성 ····· 36

7) 주변 여가공간으로서의 광장조성 ····· 37

4. 맺음말 ····· 37

세종광장 조성의 관광적 의미와 관광활성화 방향

1. 머리글

- 서울시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세종광장 조성사업은 600여년 고도의 중심에 역사·문화광장을 만드는 일로서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지대함. 세종광장 조성사업은 역사복원사업으로서 자동차에게 빼앗겼던 공간의 회복사업으로서, 또한 새로운 도심보행체계의 구축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큼.

- 특히, 서울시 관광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세종광장 지역은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지역에 부여된 상징성, 역사성과 함께 새롭게 조성되는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는 다양한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임.

- 서울은 인바운드 관광객의 80%정도가 방문하는 대규모 인바운드 관광객 수용지역이지만 관광 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음. 기존에 서울시를 찾는 대규모 관광객도 서울이 관광목적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활용하기 원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크게 증대 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도시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무관심과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서울시 행정의 총체적 역량이 발휘된 관광정책의 실현이 요구됨. 도시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관광상품화 하는 창의력의 발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기존관례에서 벗어나 보다 획기적인 노력이 전제되지 않을 때 1,200만 관광서울달성 목표는 구호에 그칠 개연성이 높음.

- 세종광장 조성은 서울시 관광 유인력 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광장 조성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전계획단계부터 세심한 전략적 접근이 요망됨. 본고에서는 관광관점에서 세종광장의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함. 먼저 세종광장 조성의 관광적 의미를 생각해보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광장의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세종광장조성의 관광적 의미

1) 새로운 도심관광명소의 창출

- 세종광장은 도심 속에 많은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임. 인바운드 관광목적지로서 서울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전체 방한 인바운드 관광객중 서울 방문관광객의 비율은 2005년의 경우 78.1%로 떨어졌음.

<표1> 방한 외래 관광객의 서울방문 비율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비율(%)	81.7	84.7	82.5	83.7	85.0	80.9	78.1

자료: http://www.knto.or.kr

- 서울은 외래 관광객의 80%정도가 방문하는 곳이지만 관광 목적지라기 보다는 관문으로서 인식되고 있고 관광목적지로서의 위상이 저하되는 주요이유는 볼거리와 할거리 등이 많은 관광명소가 많지 않기 때문임. 실제 서울은 몇 개의 고궁 이외에는 외국인들의 방문동기를 유발할 명소가 부족함. 프랑스 파리, 미국의 뉴욕, 호주의 시드니, 중국의 북경 등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반드시 방문해야 할 상징적 명소가 드믐.

- 세종광장은 서울시를 구성하는 주요 구조물이면서 관광명소로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높음. 역사성 및 문화성을 배경으로 독창성을 갖춘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방문객에게 제공될 때 서울의 방문객이 반드시 들러야 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광장은 많은 방문객의 수용을 가능케 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세종광장과 부합되는 역사문화 및 한류 등을 소재로 한 이벤트와 공연의 도입 시 관광명소로서의 유인력은 크게 증대 될 수 있음.

2) 도시의 관광이미지 제고

- 도시의 관광이미지는 도시의 관광 유인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 관광은 이미지를 소비하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음. 서울의 도시 관광 이미지가 높지 않은 데에는 서울시의 소극적인 관광행정에도 큰 원인이 있음. 그동안 서울시 관광행정은 중앙정부 의존

적인 면이 있었으며 독자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이나 투자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미흡했음. 지난 3년간 서울시 관광부문예산은 평균 42억원으로 20조원에 달하는 시 전체 예산의 2%수준에 불과함.

- 도시관광의 이미지는 도시를 형성하는 구조물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가장 좋은 이미지제고 전략은 쾌적한 도시 환경의 형성임. 서울시의 관광이미지는 역사·문화·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물리적 구성물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청계천 복원의 경우 서울시 관광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큼.

- 새로운 오픈스페이스로서의 세종광장은 서울의 관광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함. 이는 세종광장이라는 도시의 공간과 구조물이 부여하는 역사성, 상징성과 함께 독특성, 시각성, 쾌적성 등이 관광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때문임.

<표2> 복원된 청계천 방문 전후 외래 관광객의 서울시에 대한 요인별 인지적 이미지 차이

요인	전체평균		t값	유의확률
환경성	방문전 이미지	3.27	-6.995	0.000***
	방문후 이미지	3.71		
관광매력성	방문전 이미지	3.56	-3.329	0.001***
	방문후 이미지	3.74		
경제성	방문전 이미지	3.54	0.049	0.961
	방문후 이미지	3.53		
접근성	방문전 이미지	3.49	-2.798	0.005***
	방문후 이미지	3.71		
상징성	방문전 이미지	3.41	-1.649	0.100
	방문후 이미지	3.53		
구조성	방문전 이미지	3.31	-3.221	0.001***
	방문후 이미지	3.58		

<자료>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내부자료

주1: **: P<0.05, ***: P<0.01

주2: n=303

<표3> 복원된 청계천 방문 전후 외래 관광객의 서울시에 대한 요인별 정서적 이미지 차이

요인	전체평균		t값	유의확률
역동성	방문전 이미지	3.72	-2.596	0.010***
	방문후 이미지	3.91		
전통성	방문전 이미지	3.27	-2.085	0.038***
	방문후 이미지	3.45		
독특성	방문전 이미지	3.58	-3.232	0.001***
	방문후 이미지	3.82		
쾌적성	방문전 이미지	3.36	-4.534	0.000***
	방문후 이미지	3.76		
시각성	방문전 이미지	3.23	-3.079	0.002***
	방문후 이미지	3.55		

<자료>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내부자료

주1: **: P<0.05, ***: P<0.01

주2: n=303

3) 국제적인 대규모 역사·문화축제의 장 제공

- 역사·문화축제는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의 결속을 다질 뿐 아니라 관광달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개발된 축제의 수는 수천 개가 넘고 서울에만 5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축제본래의 기능수행과 함께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축제는 거의 없음. 이는 축제의 기획력과 집행력이 떨어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부족했기 때문임.

- 세종광장을 소재로 한 축제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음. 상징성, 역사성과 함께 넓은 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임. 또한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 서울의 국제적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심에 입지하여 집객력이 매우 큼.

- 세종광장을 중심으로 한 축제의 국제화는 관광목적지로서 서울의 위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 관광유인력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임.

4) 서울시민 및 지역주민의 여가기회제공

- 세종광장은 국가중심광장이지만 서울시민 및 지역주민의 광장이며 여가공간임. 새롭게 조성되는 광장은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의 옥외에서의 여가수요를 흡족하고 전반적인 여가의 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그동안 도심지역 커뮤니티의 경우 근린공원 등 여가공간의 부족으로 폐쇄된 형태의 여가활동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음. 세종광장은 도심 속에서의 산책, 아침운동 및 가족 모임 등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임.

5) 한국관광홍보의 장으로서의 기능수행

- 세종광장이 관광명소로 정착되고 서울 방문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 가는 곳이 될 경우, 세종광장은 한국 및 한국관광을 널리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게 될 것임.

- 대량의 관광객이 일정 지역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광장의 구성 및 프로그램의 운용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및 산업 등의 특성 및 강점을 용이하게 홍보할 수 있게 됨. 또한 관광관련 정보를 우리나라의 앞선 IT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할 때 홍보의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임.

3. 관광활성화 방향

1) 항상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세종광장은 힘과 권력을 표현하는 권위적인 공간이거나 단순히 보여지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서는 안 됨. 광장은 항상 접근하기 쉽고 방문객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 사람이 모이지 않고 사람간의 교류가 없는 광장은 불안하며 흉물로 쉽게 변할 수 있음.

- 현재 광화문과 세종로는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음. 세종광장 조성 시 우선적인 고려요소는 보행자의 접근성임. 보행자가 심리적, 물리적 부담없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자동차에 의하여 점령되었던 가로가 보행중심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광장계획 대안에 대한 평가 시 접근성에 대한 비중이 높게 부여되어야 함.

-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배치 계획상에서의 접근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광장 내에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세종광장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역사·문화적 경험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 광장의 물리적 시설물과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광장에 대한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가 제고되면서 광장의 유인력이 크게 증대될 것임.

- 한편, 세종광장 내 문화적 만남의 장이 조성되어야 함.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인 및 타외국 관광객들과 어우러지기를 바라고 있음. 세종광장은 외국관광객들과 한국인들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제공하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서울시 중심에 위치한 필수 방문목적지로서 1,200만 서울시 방문관광객과 1,000만 서울시민의 문화교류는 자연스러운 일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시설 및 프로그램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함.

2) 광장의 상징성 및 유일성 제고

- 세종광장이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광장이 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한 주요방안은 상징성과 유일성의 확보임.

- 관광명소로서의 광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광장의 상징성이 강하게 부각되어야 함. 광장을 찾아오게 하는 특별함이 있어야 하는데 상징성은 공간방문의 의미를 증대시키고 많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줌.
  - 세종로는 민족의 정신적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중추기능이 밀집된 핵심가로이며,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곳임. 세종로 광장과 연계된 역사·문화가 광장 디자인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적절하게 표출되어야 함.
  - 세종로가 과거 육조거리이었음을 상징하는 구조물 및 표식 등이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도록 함.
  - 일제의 영구적 지배의도가 숨어 있는 은행나무는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몇 그루의 은행나무는 역사의 증거물로서 상징적으로 보존하도록 함.

- 세종광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춘 유일한 시설물과 경험을 제공함. 유일성은 관광 주요동기인 신기성(novelty seeking)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임.
  - 시각적 안정감이나 기능상의 무리가 없는 전제 하에 기존의 통상적인 광장의 배치 형태와는 차별화된 광장 디자인을 시도하는 것은 방문객의 신기성(novelty seeking)자극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복원되는 광화문 축을 따라 편측 광장을 조성하는 안은 역사축 회복의 상징성과 새로운 유형의 광장형태라는 점에서 의미를 높게 부여할 수 있음.
  - 한편 IT기술을 세종광장 디자인 시 적극 접목하여 IT강국의 면모가 세종광장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세종광장이 IT첨단기술에 대한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나라의 IT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시청 앞 광장 현상공모 시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광장바닥에 LCD모니터를 설치하는 안을 세종광장에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광장의 유일성과 IT강국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창의적인 컨셉으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임.

3) 광장공간의 가변성 확보

- 세종광장은 행사의 내용 및 이용객의 방문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의 변환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광장공간의 가변성이 확보되어야 함.

  -세종광장은 국가적 행사나 집회를 위한 공간이고 관광객에게는 관광명소이며 연주·음악 등의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공간이고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에게는 생활여가공간임.

  - 가변성의 확보를 위하여 위요감이나 폐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차원의 조경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가능한 영구적 조경시설물은 최소화하고 바닥의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공간의 유용성과 활용도를 높게 함. 꼭 필요한 경계석의 높이도 가능한 최소화 하여 대규모 행사시 공간의 변형이 용이하도록 함.

- 기능과 연계가 약한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구조물은 최소화하고 설치가 필요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4) 수준 높은 공공시설의 조성과 서비스 제공

- 광장의 시설물의 수준은 높아야 함. 관광명소로서의 관광의 기능과 광장의 영속적인 기능을 감안할 때 미래적 관점에서 광장의 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과거 획일적인 공공시설물 단가 설정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임.

  - 광장재료의 선택시 재료의 내구성 등을 감안하고 시설의 리모델링 시기 등이 사전에 계획되어 주기적인 시설의 개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함.

- 광장 방문객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세종광장의 관리는 단순히 넓은 공간의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광장을 방문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과 활동이 있어야 할 것임. 지속적으로 공연 및 전시 등 광장운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완되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광장관리에 있어 서울시가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 관광마케팅 공사'는 세종광장의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국제적 축제의 개발

- 세종광장과 연계된 역사·문화를 소재로 축제를 개발하고 적극 지원하여 국제적 명성을 갖는 도시축제로 발전시킴.
  - 세종로는 민족의 정신적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중추기능이 밀집된 핵심가로이며,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곳으로 축제로 개발이 가능한 역사·문화의 소재는 다양함.
  -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축제는 수천이 넘지만 대부분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축제로 발전된 경우는 거의 없음. 이는 축제입지의 지역적 한계와 축제기획 및 집행력의 결여 때문임.
  - 세종광장을 중심으로 한 축제의 발전 잠재력은 높음.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 서울의 국제적 접근성이 높고 도심에 입지하여 집객력이 크고 세종로의 상징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광장의 수용공간이 크기 때문임.

- 축제를 통하여 한국의 다양한 문화나 삶의 모습이 흥미롭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함. 축제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도시·문화·역사 등을 주제로 한 공연 페스티발을 시행할 수 있음. 축제의 유인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적인 경연방식을 도입하여 각국의 다양한 공연물이 적극 소개될 수 있도록 함. 한편, 필요시 하이서울 페스티발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축제의 소구력 및 집객력을 강화함.

- 한류를 축제의 주소재로 활용함.
  - 정기적으로 세종광장에서 대규모 한류스타의 공연을 개최하여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를 도모하고 참가객의 주변지역 투어를 유도하도록 함. 날씨의 영향으로 외부에서의 상설공연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에 실내공연장을 확보하도록 함.
  - 세종광장을 배경으로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영화, 연극,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함.
  - 2010 상하이 EXPO와 연계하여 공연과 전시가 결합된 2010서울 한류 축제를 기획함.

- 축제의 주 타겟은 한류바람이 불고 있는 아시아권으로 하고 점차 타켓시장을 타지역으로 확대함. 한류는 세종광장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류를 통한 세종광장 활성화는 한류의 지속성에 기여할 것임.

6) 에듀테인먼트의 장으로서의 광장조성

- 광장의 유인력 증대를 위하여 주요잠재방문객인 내국인의 교육적 욕구에 대한 소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 에듀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할 것임.

- 단순히 놀이적인 차원의 광장방문보다는 교육적인 요소가 결합 되었을 때 광장에 대한 방문 동기는 크게 증가하고 광장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음.

- 에듀테인먼트의 소재는 역사문화도시 및 산업 등 다양함. 특히 IT기술과 교육소재를 결합한 전시, 공연 및 해설 프로그램의 개발은 에듀테인먼트의 장으로서의 광장의 유인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음.

- '서울 관광 마케팅 공사'를 중심으로 교육전문가 등의 협조를 얻어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검증 후 시현되도록 함.

7) 주변 여가공간으로서의 광장조성

- 세종광장은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상징적 장소이지만 서울시민과 주변 지역민의 일상적인 여가공간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 대규모 광장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함.

- 필요시 커뮤니티별로 날짜, 요일 및 장소 등을 지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커뮤니티별로 여가활동을 통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함.

- 한편 광장 조성 시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광장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도록 함. 광장을 구분하여 구역별로 관리에 대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4. 맺음말

- 도심의 역사문화 오픈스페이스로서의 세종광장조성은 서울시 관광활성화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상징성, 역사성과 함께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는 다양한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임.

- 세종광장은 도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서울시의 광장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관광목적지로서 서울시의 유인력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임. 한편, 새롭게 조성될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는 국제적 축제의 좋은 장이 될 수 있는데 세종광장을 중심으로 한 축제의 성공은 관광목적지로서의 서울시의 위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임. 또한 세종광장은 서울시민 및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관광홍보의 장으로서의 의미도 갖게 됨.

- 세종광장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종광장이 권위적인 공간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 낮과 밤 구분 없이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또한 상징성과 유일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광장이 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광장의 배치형태에서의 탈피를 시도하고 IT강국의 면모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함.

- 한편, 광장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하고 광장의 유용성 증대를 위하여 광장공간의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함. 이를 위하여 가급적 영구적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바닥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은 높아야 되는데 관행적인 예산책정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서울 관광마케팅 공사가 광장서비스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세종광장과 연계된 국제적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모습이 흥미롭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함. 한류를 축제의 주소재로 활용하고 축제의 주 타켓을 한류바람이 불고 있는 아시아권에서 점차 타지역으로 확대함.

- 에듀테인먼트의 장으로서 관광의 활성화가 도모되도록 함.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IT기술과 교육소재를 결합한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함. 한편, 세종광장은 주변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광장관리에 있어 지역주민의 협조가 유도 되어야 함.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2003), 시청앞, 광화문, 숭례문 광장 시민 광장조성 기본계획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 1,200만 관광서울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 결과 보고서
- 이영주· 최승담(2003), 도시관광개발의 특성과 향후 연구방향, 국토연구, 제39권
- 최승담·박경렬(2005),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관광 이미지 측정척도개발, 서울도시연구, 제6권 제1호
- 최승담(2006)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이플러스애드
- 최승담(2006), 청계천과 도시생태 문화관광, 청계천 복원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 2006. 10.2, 서울역사박물관
- http://www.hiseoulfest.org
- http://www.knto.or.kr